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The Korean Journal of Health Psychology
2007. Vol. 12, No. 2, 347 - 365

행복과 종교적 태도의 개념관계 모형들에 대한 비교 검증[†]

김 동 기[‡]
강남대학교 교육학과

본 연구는 인간의 행복과 종교적 태도 간의 상관적 개념관계에서 영향력의 방향성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관계 모형들에 대한 비교 검증을 고찰하는 것이 그 목적이다. 본 연구의 가설적 모형은 다음 5가지 모델이다. 즉, 두 요인 간에 서로 관계가 없다는 이중과정 모델, 두 요인이 상반된 설정의 전제를 하는 대립 모델, 행복하니까 초월적 종교성이 강화된다는 행복감→종교성의 일방향 모델, 종교에 몰입하다보면 행복의 독특한 가치를 느낄 것이라는 종교성→행복감의 일방향 모델,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양방향의 관계를 가정하는 상호작용 모델 등이다. 본 연구의 대상자는 총 633명(남자 197명, 여자 436명)이었고, 개신교인이 245명 천주교인이 388명으로 분포되었다. 접근 방법으로는 관계성을 중심으로 비교하고자 하는 모델들의 타당도를 검증하였다. 확인적 요인 분석과 국소적 최소 제약법의 접근으로 상호관계 비교를 수행하였다. 본 연구의 가설적 모형에 따른 검증의 분석결과를 종합하면, 상호작용모델, 일방향(행복감→종교성)모델, 일방향(종교성→행복감)모델, 이중과정모델, 대립모델의 순으로 적합도의 우열이 가려진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어 : 행복, 종교적 태도, 심리적 안녕감, 심리적 안녕감 척도, 종교정향, 종교정향 척도

[†] 이 논문은 2007년도 강남대학교 교내연구비 지원에 의한 것임.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 김동기, (446-702)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구갈동 산 6-2강남대학교 교육학과, E-mail : ghdgk@kangnam.ac.kr

인간의 행복은 최근에 여러 학문의 분야들에서 관심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는 주제이다. 이 행복에 대해서 사람들이 추구할 수 없거나 추구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일한 부산물이거나 좋은 삶의 어떤 다른 부분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사람들의 건강과 관련하여 행복을 연구하는 심리학자들은 보다 심층적으로 접근하여,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일부 사람들에게는 우울을 경감시키는데 비교적 성공적이었다고 보며, 그것의 목적은 우울한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데 있다고 하였다. 이와 같은 행복이라는 주제는 심리학이 현대에 이르러 불행하고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대한 것이라기보다는 밝고 건강하며 미래 지향적이고 긍정적인 것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시대적 추세와 맥을 같이 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행복을 삶의 질을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요건이라고 평가하고 있으며, 거기에는 정신적 신체적 물리적 사회적 요소들이 다양하게 포함되어 있다. 행복을 연구하는 심리학자들이 행복의 의미를 사람들에게 질문하였을 때, 그들은 행복에 대해서 그러한 다양한 요소들에 의해서 종종 기쁨의 상태이거나 정적인 정서 상태이며, 그리고 삶에서 만족감을 경험할 때라고 응답하였다. 그리고 가끔 우울이나 불안 등의 다른 부적인 요소가 없는 경우를 세 번째 요소로 포함시키기도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행복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 극히 주관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 때로는 행복의 진정한 개념은 모호하고 신비스럽기까지 하다고 말한다. 행복에 대한 여러 연구들의 결과를 보면, 예상과는 달리 예기치 않은 결과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는 것이다. 최근에 행복을 연구하는 심리학자들은 우울과 행복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정적 정서에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어, 소위 '주관적 안녕감(subjective well-being: SWB)'이라고 하는 말을 행복감의 대안으로 사용하기 시작하였고, 행복감과 정확하게 동일한 의미가 있다고 하였다(Argyle, 2001).

행복이라는 주제를 다루는 심리학자들은 행복의 원인과 행복함을 일으키는 심리적 과정을 이해하고자 한다. 그것으로 사람들의 행복을 증진시켜줄 방법을 제시해줄 수 있기 때문이다. 행복은 부분적으로 결혼이나 취업과 같은 객관적 조건에 의존하지만 때로는 마음에 의존하기도 한다. 즉, 행복은 우리가 현상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의존하고 있다. 행복을 주관적 안녕감과 의미가 동일하다고 볼 때, 인간 삶에 있어서 실존적으로 안녕감을 가지게 해주는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가 종교이다. '종교가 사람을 더 행복하게 할 수 있는가?' 그렇다고 할 수 있다. 종교를 가진 신앙인들은 안녕감의 좀 더 전문적인 부분에서 혜택을 받고 있다. 예컨대, 종교단체에서의 봉사는 스스로 내적인 긍정적 경험을 일으킨다. 신도들은 죽음을 덜 두려워하고, 심한 스트레스에도 대처할 수 있는 안녕감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신앙 공동체에서의 강한 사회적 지원에 의해서 일어나기도 한다는 것이다(김동기, 2005).

행복과 종교적 태도

실용주의 철학자들은 종교의 증거는 그것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에 달렸다고 한다. 그러한 영향의 측면은 종교가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드는지, 그것으로 인해 결혼생활과 직업이 보다 더 성

공적인가 하는가에 달렸다. 종교적 관점에서 인간이 구원되고 내세를 받아들이는 것에만 있지 않고, 종교가 보상보다 벌을 전달하게 된다면 당혹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만약에 종교가 다른 세계의 일이라면, 이 세상에서의 종교적 의지는 쓸모 없을 것이 아닌가? 이러한 것들은 실증을 요구하는 질문이고 그것들 각각에 대해서 대단히 많은 연구들이 수행되어왔다. 예컨대, 만약에 종교가 사람을 행복하게 했다면 우리는 결국 인간의 입장에서 볼 때 왜 그렇게 되는지 의문을 가지게 된다. 우리는 이것이 특별한 종류의 행복인지 아닌지 의문을 가질 수 있다. 그리고 종교의 원가(costs)가 있는지 의문을 가질 수 있고, 친절과 이타성 같이 정신의 열매가 있는지 의문을 가질 수 있다(Francis & Katz, 2003). 종교와 행복의 관계에 대한 의문들은 인간과 종교를 연구하는 전문가들이 오래전부터 다루어 왔지만, 최근에 행복에 대한 구체적인 이론들이 제안되는 연구 흐름에 맞추어 종교와의 상호작용에 있어서 그 영향력을 고찰하게 된 것이다. 지금까지 연구자들의 일반적인 조사는 행복에 미치는 종교의 명확한 효과를 보여주는 것이었는데, 이는 행복감이 종교에 영향을 주기보다는 종교가 행복감에 영향을 준다고 보기 때문인 것 같다. 마치 행복한 사람은 종교로 회심하기를 기대하고자 하는 이유가 없는 것처럼, 사실상 그 반대가 좀 더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김동기, 김은미, 2005). 그러나 한편으로는 종교가 개인의 안녕감이나 행복을 조장한다는 것에 대해 안녕감이나 행복을 줄인다는 반박 주장들이 있고, 그러한 논박들은 실증적 연구를 위한 주제로 떠오르고 있기도 하다(Piedmont & Moberg, 2003).

본 연구는 인간의 행복과 종교적 태도 간의 상호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행복에 해당하는 심리적 안녕감과 종교적 태도에 해당하는 종교정향에 대한 이론들의 배경들을 고찰하는 데에 그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행복감과 종교성의 두 측면 간의 상관적 개념관계에서 영향력의 방향성을 검토하고, 그에 따른 관계 모형들에 대한 비교 검증을 고찰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본 연구의 주제와 같이, 근래에 이르기까지 행복감과 종교적 성향이나 신앙생활과의 관계성에 대한 연구가 관심을 끌면서 그 양자의 개념 접근이 다차원적으로 이루어지고 구체화되어가고 있었다. 그리하여 신앙인들이 종교를 통하여 심리적 안녕감(행복)을 얼마나 느끼는지에 대한 연구들이 하나의 축을 이루었다.

Witter, Stock, Okum 및 Haring(1985)이 56개의 연구들을 대상으로 한 메타분석(meta-analysis)의 결과에서 역시 종교가 주관적 안녕감에 정적으로 상관성이 있다는 주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종교와 행복 간의 상관관계(r)가 .14 ~ .25 수준으로서 강한 정도는 아니었다. 최근의 연구들에서는 신앙심과 전체적 행복의 상관계수는 .17 로 나타났다(Peterson & Roy, 1985). 비록 종교가 주관적 안녕감과 상관이 있다하더라도 모든 신앙인이 행복하다는 것이 아님이 분명하다. 종교와 안녕감 개념 모두가 복잡한 개념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낮은 상관성을 나타내고 있고, 결과로 나타난 상관성은 그러한 변인들을 어떻게 측정하느냐에 따라 다르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Chamberlain과 Zika(1989)는 신앙심과 행복과 관련하여 그 관계는 단순한 것이 아니라고 보는데 그 이유는 실증 연구에 의하면 안녕감과 종교의

상관성의 성질은 변화하고, 종교변화의 측정은 단순하지 않고 안녕감 자체를 평가하는 방식에 좌우된다는 것이다(Hadaway & Roof, 1978; Steinitz, 1980; St. George & McNamara, 1984).

Inglehart(1990)가 연구한 바로는 유로지표(Eurobarometer) 조사를 종합한 결과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종교와 심리적 안녕감의 상관관계가 증가하는 현상을 보였고 행복에 대한 종교의 영향은 신앙의 다른 측면보다는 교회 출석과 같은 종교적 활동에 더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세계적인 조사는 Veenhoven(1994)에 의해 이루어졌는데 그 결과로는 유럽인들 보다 미국인들의 안녕감에 종교의 영향이 더 컸고, 노인들, 흑인들, 여성들, 개신교신자 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그 교회의 다른 구성원들로부터의 사회적 지원을 통하여 종교가 그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경우라고 할 수 있다. 한편 Ellison(1991)은 사회적 지원과 개인적인 헌신을 지속적으로 하면 그것이 행복에 영향이 있음을 발견하였고, Genia(1996)는 정신적 안녕감과 특히 종교적 안녕감 요소는 신앙적 내재성(immanence)과 강하게 상관관계를 이루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이것은 안녕감이 종교적 목적 그 자체로서의 종교와 깊게 관여되어 있다는 의미라고 볼 수 있다(Argyle, 2001).

그러나 사회적 지원은 종교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한다는 이유만은 아니었다. 신앙인을 대상으로 하는 조사의 척도 문항에서 "하나님 가까이"라는 항목은 교회출석 등과는 상관없이 행복과 관련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Pollner, 1989). 종교적 경험과 기도는 행복을 증진시키고, 그들은

인간들 간의 대인관계와 비슷한 방식으로 하나님과의 사회적 대인관계 경험을 가졌다고 주장하였다(Kirkpatrick, 1992). 이와 같이 행복연구에서 행복은 긍정적 정서적 경험의 빈도와 상관이 있다고 주장되었으며, Argyle과 Hills(2000)는 교회 내에서의 그러한 경험의 가능한 효과에 대해서 고찰하였다. 그들은 행복이 두 가지 종교적 정서 요소와 약간의 정적인 상관이 있음을 발견하였다. 첫째, 초월적 요소는 사회적 공동체로서의 교회의 유익성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즐겁게 가지는 것에 관한 것이고, 둘째, 사회적 요소는 '가족의 일원' '타인과 일체성' 등으로서 서비스 과정에서 얻어질 수 있는 것이다.

심리적 안녕감과 종교정향에 대한 측정

지금까지 인간의 행복과 종교적 태도의 상관관계에 대한 이론적 배경을 고찰하였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행복감과 종교성의 상관적 개념관계 모형들을 검증하는데 있다. 행복감과 종교성의 개념관계를 알아보기 위한 실질적인 측정 도구는 심리적 안녕감(행복) 척도와 종교정향(종교적 태도) 척도이다. 이 척도들에 대한 개발 과정에서, 개념적 구성 요소들에 대한 이론 정립과 척도의 객관성 구축 과정의 접근 이론들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먼저 심리적 안녕감 연구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을 하면, 지금까지 실제로 다차원적 접근방법에 의해 수행되어왔다고 할 수 있다(Diener, 1984; Headey & Wearing, 1992). 그러나 비록 안녕감의 일반적 차원이 규명되고 측정되었다 할지라도, 그것의 구성 요소들에 대한 변인을 분리하는데 어

려움을 겪어온 것은 사실이다(Diener & Emmons, 1984).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견이 일치된 안녕감의 세 가지 차원은 생활 만족, 정적 정서, 부적 정서로 나타났다(Andrews & Withey, 1976; Diener, 1984; Headey & Wearing, 1992; Headey, Holmstrom, & Wearing, 1984, 1985).

최근까지의 심리적 안녕감 연구는 20년 동안 두개의 정적 기능화의 개념에 의해 이루어져 왔다. 그 하나는 Bradburn(1969)의 독창적인 연구에서 찾아볼 수 있듯이 정적 영향과 부적 영향 간의 구별이 가능하고, 두 가지 사이가 균형을 이룰 때 행복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다. 개념적 방법론적 정밀성은 초기 안녕감의 조작가능성에 근거를 두었다. 예컨대, 정적 혹은 부적 영향의 가정된 독립성은 논쟁 대상이 되었고, 영향의 강도와 빈도를 구별하는데 실패한 것으로 나타났다(Diener, Larsen, Levine, & Emmons, 1985). 정적, 부적 영향의 빈도는 부적 상관을 나타내었고, 반면에 강도의 상관관계는 정적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 주요 개념은 사회학자들 사이에서 크게 인정을 받았는데 안녕감의 해결 지표로서 생활만족을 강조한 것이다. 인지적 구성요소로서 본다면, 생활 만족은 행복을 보충하는 것이고, 정적 기능의 주요 영향력 차원으로 인정되었다(Andrews & McKennell, 1980; Andrews & Withey, 1976; Bryant & Veroff, 1982). 다른 연구들은 안녕감을 인생 전반적 만족에 대한 의문과 일, 수입, 사회적 관계, 이웃 등에 대한 특정 의문에 대해 분석하였다(Andrews, 1991; Diener, 1984). 이러한 연구들은 미국 생활에서 사회적 변화 즉, 시대에 따른 생활의 질에 대해서 그리고 안녕감과 그 관계들의 수준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어떠한지에 대해

서 관심을 집중하였다(Bryant & Veroff, 1982).

Ryff와 Keyes(1995)의 행복감의 이론에서는 심리학의 하위 영역에서 정적 기능들을 집대성한 것들을 제안하였다. 처음에 Ryff(1989)는 심리적 안녕감의 의미를 탐색하는 연구를 시작하여, 행복에 대안이 될 수 있는 정적 기능의 중요한 측면이 들어있는 안녕감의 척도를 개발하였다. 그는 1995년에 심리적 안녕감 척도를 재구조화하여 항목의 신뢰성 문제나 이론적 측면을 보완하였다. 발달심리학 영역은 Erikson(1959)의 심리사회적 단계, Buhler (1935)의 기본 생활경향, Neugarten (1973)의 건강 성장의 성격 변화론 등이다. 임상심리학 영역은 Maslow(1968)의 자아실현 개념을 통한 안녕감, Allport(1961)의 성숙이론, Rogers (1961)의 완전히 기능하는 사람의 특징 이론, Jung(1933)의 개인특성의 집단화 이론 등이다. 그리고 정신건강 문헌은 전형적으로 심리학적 기능의 부적인 측면에 공을 들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적 정신건강에 관한 자료의 해설도 포함하여 설명하고 있다(Birren & Renner, 1980).

종교성 연구도 다차원적 접근이라고 볼 수 있는데, 많은 실증 연구에서 다양한 문항 사용과 이질적인 표집에 의해서 드러난 연구결과들임에도 불구하고, 종교는 단순하고 일반적 요소로 드러나고 있다. 물론 심리학자뿐만 아니라 신학자들도 공식적 신앙과 제도적 교파 등에서 형식을 갖춘 종교와 생활의 영성적 차원과 관련되고 보다 주관적으로 표현되는 종교를 구별하려는 노력을 계속해왔다. Allport(1950)가 주장한 바와 같이, 전자를 종종 내재적(intrinsic) 신앙심이라 부르고, 후자를 외재적(extrinsic) 신앙심이라 하여 두 가지 종교정향(religious orientation)은 서로 다른 실증

적 결과를 나타내는 증거가 있다.

종교정향 구조는 비록 개념적으로나 방법론적 기반에 대해 비평이 있기는 하지만, 종교심리학에서 활용성이 높고 실증적으로 성과가 있는 구조로 인정되어 왔다(Donahue, 1985; Burris, 1994). 종교정향에는 세 가지 형태로 나누는 실증적 관심의 대상 즉, 내재적(internal), 외재적(external), 추구적(quest) 등이 있다고 하였다(Batson & Ventis, 1982). 내재적 정향은 역사적으로 정의되고 자체가 목적인 종교로서 다른 목적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활용되는 것이 아니라 종교적 관여 자체가 존재 이유를 충족시키는 구조이다(Allport & Ross, 1967). 최소한, 측정치로서의 내재적 정향은 강렬하지 않고, 엄격하지 않다는 점에서 보면, 종교정향은 종교적 정통성에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다(Batson, Schoenrade, & Ventis, 1993; Kirkpatrick & Hood, 1990).

외재적 정향은 내재적 정향의 동기적 섬세함이 부족하기 때문에 오히려, 종교적 관여를 위하여 구체적인 실용성과 연합되어 있다. 특히, 종교적 참여는 두 가지의 각기 다른 욕구 즉, 개인적 안락과 사회적 지위를 만족시키는 것으로 되어왔다. 그리하여 내재적 정향을 위해 강한 정통성에 관여를 주장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외재적 정향을 부족하게 하는 것이다(Allport & Ross, 1967; Kirkpatrick, 1989). 그리고 추구적 정향은 의문을 해결하려는 의지, 실존적 의문에 직면했을 때, 변화에 개방적인 자세를 가지는 것 등을 반영하고 있다(Batson et al., 1993). Burris와 Jackson(2000)은 최근에 이 개념화를 지지하는 증거를 제공하였다. 즉, 추구는 일반 사회집단이나 종교집단에서 볼 수 있는 자기 위안의 행동들과 연관이 있음을

제안하고 있다.

심리적 안녕감과 종교정향의 관계 모형에 대한 가설적 구성

종교를 가진 신앙인이 느끼는 행복, 안녕감 혹은 생활만족에 대한 지금까지의 연구들에서, 다양한 개념적 변수와 접근 방법들이 동원되어 왔다. 여러 결과들로부터의 결론은 종교와 행복(혹은 생활만족) 간의 상관성에 대한 보다 자세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연구 설계는 상관연구보다 실험연구가 필요하고, 신앙심과 행복(혹은 만족도)을 체계적으로 다양하게 다루어야 한다고 하였다. 어떤 연구자들은 생활의 다른 측면의 신앙심과 행복 간의 다른 상관성에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연구 설계의 선택으로 종교적, 비종교적 혹은 만족 혹은 불만족 등에서 비교 연구를 할 수 있다고 하였다(Brown, 1994).

이러한 연구의 구체적인 예는 Delbridge, Headey 및 Wearing(1993)이 호주 멜버른에서 수행된 종교와 생활만족에 대한 조사연구에서 찾아볼 수 있다. 연구의 목적은 종교적 비종교적(혹은 세속적) 태도와 전체 인생 만족에 영향을 주는 태도를 깊이 있게 연구하는 데에 있었다. 특별히, 종교와 안녕감 간의 매개 변인을 찾아내고, 종교의 통합된 역할을 고찰하고, 그 태도들이 인생에 대한 목적과 의미까지 확장하여 연구하고자 하였다. 이 조사연구에서 4개의 하위집단을 구분하여 개방형 질문형식으로 심층 면접조사를 하였다. 첫째, 높은 생활만족을 하고 신앙심이 높은 집단은 신앙이 모든 인간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만족에 있어서 그들의 조망을 형성시켜주는 것은 물론 그

들의 신앙은 세속적인 집단에 의해 취하는 것과는 다른 조망을 갖게 한다. 신앙심이 낮은 집단은 종교가 생활의 중심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들은 초자연적 힘이나 잠재적 힘을 부정하지는 않았다. 신앙이 중요하다고 믿고 있지만 하나님은 기적 같은 일을 만들어 존재를 증명해주기를 바라고 있었다. 둘째, 낮은 생활만족을 하고 세속적인 집단은 인생은 실망이고 쓸쓸하고, 왜 다른 사람들이 생활을 만족하지 못하는가에 대해서 명확히 알지 못한다. 하나님에 대해 별로 아는 것이 없어 정신적 극복을 위해 요가나 명상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종교적 수준이 낮은 집단은 부모의 종교적 사고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왔지만, 하나님이 자신에게 개입하는 것을 싫어하였다. 생활에 대한 긍정적 태도가 부족하고, 그들이 신앙에 헌신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 보였다.

그들의 연구결과에서 종교는 사람들에게 강한 감각의 인생의 목적과 의미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자기만족과 생활의 만족에서 높은 상관관계($r = .73$)를 보였다. 그러나 종교적이지 않으면서 인생의 목적과 의미의 강한 감각을 가진 사람이 그들의 생활을 만족하는 경우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결과적으로 뚜렷한 해답을 제시하지 못하지만, 종교적 만족의 강한 감각을 가진 사람은 인생의 목적과 의미의 감각을 세속적인 원천에서 끌어내는 사람보다 약간 더 생활을 만족하고 있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이 결과는 Chamberlain과 Zika(1989)의 연구를 지지하였다. 즉 신앙심은 인생에서 중요한 목적과 의미와 함께 행복과 관련된 다른 변수들을 포함하고 있다는 결론과 일치하였다. 두 연구 표집에서 상관관계가 가장 높게 나타난 변수는 자기성취로서 생

활만족에서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었고, 종교가 통합적이고 행복에 기여하고 있다는 데에까지 견해를 넓혀주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연구들에서 어려운 점은 신앙심의 복합성을 파악하는 문제인데, 특히 종교정향에서 내재적과 외재적 신앙심 간의 차이를 찾아내는 것에 관한 것이었다. 김동기(2005)는 우리나라 3대 종교(불교, 개신교, 천주교)를 대상으로 하여 심리적 안녕감을 종속변인으로 하고 종교적 내재성(immanence)과 종교정향을 독립변인으로 하여 이들 관계의 공병성을 검증하였다. 이 연구의 결과에서, 각 변인 간의 변량분석이 유의미하게 나타난 관계는 종교적 내재성에서는 특히 수용성 척도에서 강하고, 종교정향에서는 3개의 하위 척도(외적, 내적, 추구적) 모두에서 유의미한 상호작용이 일어났다. 이 결과로 심리적 행복감은 종교적 내재성과 종교정향에 따른 변량분석에서 뚜렷하게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인간의 행복과 종교 간의 관계 즉, 사람들이 종교를 가져서 행복한가 아니면 불행하니까 종교를 통해 행복해지려고 하는가의 개념적 관계를 비교하여 검증해 보고자 함이 그 목적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두 측면 간의 상관적 개념에서 영향력의 방향성에 대해서 관계 모형들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구체적인 접근 방법 즉, 확인적 요인 분석과 국소적 최소 제약법의 접근으로 상호관계 비교를 수행하고자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관계성을 중심으로 비교하고자 하는 모델들의 타당도를 검증하기로 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을 위하여 설정된 모형 5가지와 검증 과정의 접근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의 모형은 **이중과정 모델(dual process)**로서 두 요인 간에 서로 관계가 없다 ($r=0$)고 가정하는 방식이다. 즉, 행복감과 종교성은 서로를 예측할 수 없으며 일치한다하더라도 이는 우연적 경우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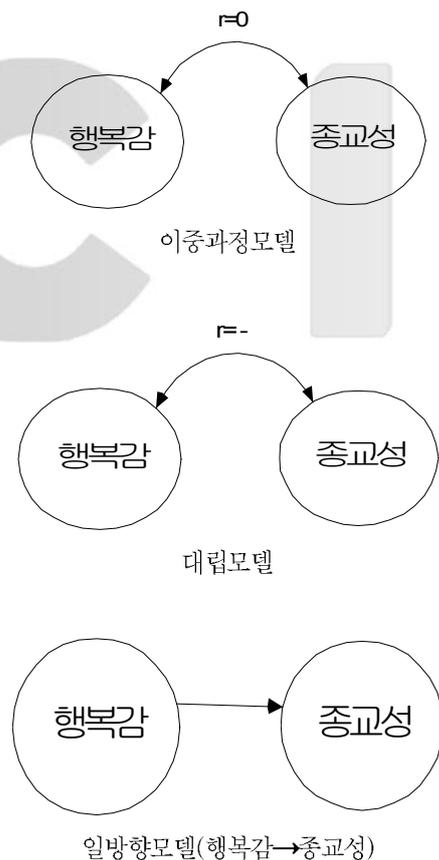
두 번째의 **대립 모델(confronting)**은 행복과 종교적 태도에 대하여 상반된 설정의 전제를 검증하는 것이다. 즉, 불행하니까 이를 극복해보려고 종교에 몰입한다는 개념이다. 이를 통계적으로 검증하기 위해서는 국소적 최소화법(local minimums)을 적용할 수 있다. 이는 요인 내의 관계가 대립적이거나 불확실할 경우에 동일 요인 내에서 방향성을 달리 가정할 때 쓰이는 방법이다. 즉, 단일 요인이라고 한 요인에 포함되는 각 측정변인들의 요인 적재치를 모두 음(-)으로 고정 시킴으로써 나머지 요인들이 대립되는 과정이라면 부합치가 높아진다고 설정하는 것이다(Smith, Mar, & Turoffet 1998).

세 번째의 모형은 **행복감→종교성의 일방향 모델(happiness-to-religious orientation one way model)**로서 행복하니까 신앙적으로 영원성, 성스러움, 진리, 합일성 등에 대한 욕구나 갈망이 일어나고, 초월적 태도가 생겨 자아 초월적 종교성이 강화된다는 가설이다. 네 번째의 **종교성→행복감의 일방향 모델(religious orientation-to-happiness one way model)**은 종교에 몰입하다보면 행복에 대한 독특한 가치가 발생하면서 더욱 행복감을 느낄 것이라는 모형이다.

마지막의 **상호작용 모델(interactive model)**은 두 개의 요인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양방향의 관계를 가정하는 모형이다. 이 모형은 심리적

안녕감과 종교성을 인과적 관계로 파악하기 보다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상호작용적 관계로 이해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심리적 안녕감과 종교성의 이론적 관계를 모두 고려하여 이상과 같은 다섯 개의 가설적 모델을 구성하였다. 이 모델들의 요인 간 관계는 그림 1에 제시되어 있다. 이러한 모델들은 각각 분명한 시사점들을 가지고 있으며 동일한 통계적 기법과 기준을 적용하기 때문에 기존의 연구들에서는 파악하기 어려웠던 모델들의 상대적 비교와 판정이 가능하다고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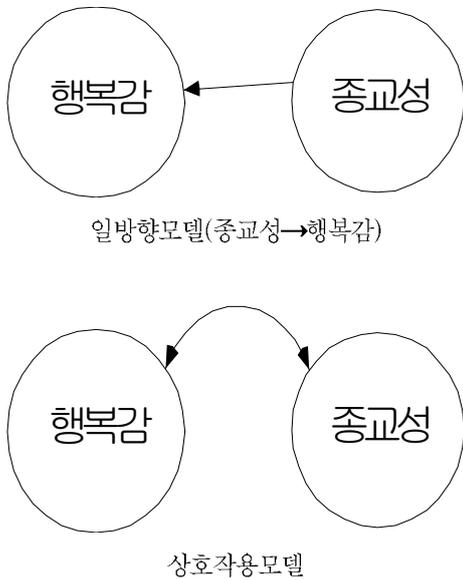


그림 1. 심리적 안녕감(행복)과 종교성 개념관계 모형

방법

연구대상

본 연구의 연구대상자는 경기지역에 거주하면서 보편적 수준에서 종교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기독교인으로 국한했으며 총 633명으로서, 이 가운데 개신교인이 245명, 천주교인이 388명이었다. 성별로는 남자가 197명(31.1%), 여자가 436명(68.9%)이었다. 연령별로는 20대 이하가 190명(30.0%), 30대가 104명(16.4%), 40대가 155명(24.5%), 50대가 94명(14.8%), 60대 이상이 90명(14.2%)이었다. 신분별로는 직장인이 163명(25.8%), 주부가 227명(35.9%), 학생이 122명(19.3%), 기타가 121명(19.0%) 등으로 분포되었다.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된 조사도구는 두 가지로서, 행복감을 측정하는 심리적 안녕감 척도와 종교적 태도를 측정하는 종교정향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들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7점)까지의 Likert 방식의 척도로 제작되었다.

심리적 안녕감 척도

심리적 안녕감 척도는 Ryff(1995)가 개발하여 재구조화한 Psychological Well-Being Scales로서 총 46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척도에서 안녕감의 정적 기능 역할을 제공하는 복합적 이론의 틀은 안녕감의 다차원적 모델을 개발시키는 이론의 근거가 되었다. 이 척도는 심리적 정적 기능의 6가지의 변별적 요소로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즉, ①자아수용(self-acceptance 8개) ②개인적 성장(personal growth 8개) ③삶의 목적(purpose in life 7개) ④긍정적 대인관계(positive relations with others 7개) ⑤환경에 대한 지배력(environmental mastery 8개) ⑥자율성(autonomy 8개) 등이다.

종교정향 척도

종교정향 척도(Religious Orientations Scales)는 Batson과 Ventis(1982)가 개발한 것으로 3개 정향으로 나뉘져 있고, 총 27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종교정향 척도는 원래 Allport와 Ross(1967)가 외재적 종교(extrinsic religion), 내재적 종교(intrinsic religion)의 2개 정향을 측정하기 위해 제작한 것이었다. 그러나 Batson의 척도는 Allport 척도에 비해 용어의 철자도 다르게 하

였고, 추구적 정향을 추가하여 척도를 발달시켰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Batson의 종교정향 척도 내용은 다음과 같다. 즉, ①외적 척도(external scale)는 6개 문항으로서 종교의 수단적 정향(means orientation)을 평가하고, ②내적 척도(internal scale)는 9개 문항으로서 종교의 목적적 정향(end orientation)을 평가하고, ③상호작용 척도(interactional scale)는 12개의 문항으로서 추구적 정향(quest orientation)을 측정할 수 있다.

분석 절차

먼저, 종교정향과 심리적 안녕감의 측정변인들에 대한 신뢰도분석을 실시하였다. 종교정향의 27개 문항을 대상으로 내적 일치도 계수(Cronbach's α)는 .72로 수용할만한 수준이었으나 해당문항과 그 문항을 제외한 전체점수간의 상관관을 나타내는 'corrected item total correlation'에서 역상관과 .20 이하의 상관관을 보이는 7개 문항(7, 9, 13, 15, 17, 25, 27번 문항)을 제외하였다. 이들 문항을 제외한 후 해당문항을 제외하였을 경우에 나타나는 'Alpha if item deleted'가 전체 알파계수보다 높게 나타나 전체 문항들 간의 일관성(consistency)이 상승하였다. α 계수는 .80로 위의 기준에 의해 삭제할 문항은 더 이상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행복 문항은 내적 일치도 계수(Cronbach's α)는 .88로 높은 수준이어서 수정 없이 사용하였다.

5개 모델의 적합도를 비교검증하기 위하여 구조방정식 모델을 산출하는 AMOS 4.01 프로그램(Arbuckle, 2000)을 이용하였으며, 또한 확인적 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과 국소적 최소 제약법(local minimums)을 적용하였다. 현재까

지 모델의 전반적인 적합도를 나타내는 최상의 지수(index)가 무엇인가에 대하여 연구자들 간의 일관된 견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Hoyle and Panter, 1995), 모델들을 비교 평가하려는 연구에서는 여러 가지의 적합도 지수를 함께 제시할 필요가 있다(Bollen, 1989). 따라서 본 연구에서 모델간의 비교 판정을 위해 사용된 지수는 χ^2 , 기초부합치(GFI), 조정부합치(AGFI), 근사평균 자승오차(RMSEA), 간명성부합치(PFI) 그리고 비교부합치(CFI)이다.

결 과

종교정향과 심리적 안녕감 간의 관계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한 행복과 종교성의 관계 검증에 앞서서, 양측에 해당하는 척도들 간의 기본적인 상관성을 나타내는 상관관계 결과는 다음의 표 1과 같다. 종교정향 외재성이 심리적 안녕감 척도의 긍정적 대인관계와 가장 높은 상관관계($r = .221$)를 나타내었고, 자율성과 가장 낮은 상관관계($r = .041$)를 나타내었다. 또 종교정향의 내재성은 안녕감 척도의 삶의 목적과 가장 높은 상관관계($r = .248$)를 이루었고, 자율성과 가장 낮은 상관관계($r = .038$)를 이루었다. 그리고 추구성(종교정향)은 개인적 성향(안녕감)과 가장 높은 상관관계($r = .182$), 긍정적 대인 관계와 가장 낮은 상관관계($r = .008$)를 나타내었다. 전체적으로는 종교정향 척도들과 안녕감 척도들 간의 상관관계는 비교적 높거나 유의한 상관관계를 이루고 있는 편이고, 부적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경우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종교정향 내에서의 하위 척도들 간의 상관관계에서 외재성과 내재성 간에는 $r = .505$ 로서 Batson(1982)이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나타난 $r = .620$ 보다 약간 낮지만 큰 차이가 아님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추구성파와 외재성 그리고 내재성의 관계에서는 Batson의 연구에서 부적 상관관계로 나타난 것과는 달리 본 연구에서는 정적 상관을 보이고 있는 것이 특징으로 보인다. 그리고 심리적 안녕감 내에서의 하위 척도들 간의 상관관계를 보면, 자아수용과 환경에 대한 지배력 간의 상관관계가 $r = .619$ 로서 가장 높고, 긍정적 대인관계와 자율성이 가장 낮은 상관관계($r = .090$)를 나타내었다.

행복과 종교 관계 개념모델의 부합도 검증 결과

일차적으로 심리적 안녕감-종교정향 측정 요인들 간의 관계를 분석하고자 총 9요인(종교정향 3요인+심리적 안녕감 6요인)에 대한 공변량 행렬

(covariance matrix)을 사용하였다. 공변량 행렬을 사용하면 변수도가 변할 때 상관행렬(correlation matrix)보다 미지수의 계산이 더 안정적이라는 장점이 있다. 또한, 측정변인들이 모두 동일한 척도(Likert 7점 척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측정단위를 표준화하기 위해 굳이 상관행렬을 사용할 필요가 없었다.

모수추정방식은 최대우도추정법(Maximum Likelihood method: ML)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측정변인들의 정상성을 분석한 결과 편도(skewness)의 범위는 $|0.31|$ 에서 $|1.27|$ 이었으며 첨도(kurtosis)의 범위는 $|0.05|$ 에서 $|1.84|$ 이었다. 또한 Lilliefors 유의수준에 따른 Kolmogorov-Smirnov 검증의 결과도 K-S의 범위가 0.632에서 8.245(모든 측정치에 대해 $p < .05$)로 정상분포를 가정하기 어려웠다.

따라서, 개별 측정변인의 정상성과 다변량 정상성을 가정할 수 없을 때는 비가중 최소자승법(Unweighted Least square method: UL)을 사용

표 1. 종교정향과 심리적 안녕감 간의 상관관계

종교정향/안녕감	외재성	내재성	추구성	자아수용	긍정관계	자율성	환경지배	삶의 목적	개인적 성장
외재성	—								
내재성	.509**	—							
추구성	.245**	.188**	—						
자아수용	.179**	.210**	.085*	—					
긍정적 대인관계	.221**	.216**	.008	.377**	—				
자율성	.041	.038	.080*	.395**	.090*	—			
환경에 대한 지배력	.153**	.230**	.035	.619**	.441**	.307**	—		
삶의 목적	.202**	.248**	.064	.512**	.400**	.286**	.508**	—	
개인적 성장	.193**	.114**	.182**	.335**	.357**	.209**	.232**	.557**	—

* $p < .05$ ** $p < .01$

하는 것이 적절하다. 그러나 표준잔차(normalized residuals)에 대한 Q-plot이 완벽하지는 않으나 어느 정도는 직선을 유지하고 있어 측정변수들이 정상성에서 완전히 벗어났다고는 볼 수 없다 (Joreskog & Sorbom, 1989). 아울러, 본 연구의 경우와 같은 분석에서는 최적의 모델을 찾기도 보다는 관계성에 대한 비교검증에 더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ML방식을 사용하는 것도 큰 무리가 없다고 판단하였다(이순목, 1990).

또한, 표본 공분산 행렬의 측정변인은 9개(종교정향 3개 + 심리적 안녕감 6개)이며, 표본의 크기는 633명이고 추정될 미지수의 개수의 범위는 최소 16개에서 최대 20개이다.¹⁾ 따라서 표본크기와 미지수 개수의 비율이 5:1를 초과하고 있는데 이는 표본추출의 오차를 줄이기 위해 Bentler와 Chou(1987)가 제안한 최소한의 표집 크기이기도 하다. 이 때문에 표집 오차로 인해 모델에 대한 그릇된 결론을 내릴 가능성은 적다고 판단하였다. 다음의 표 2에는 5개 개념모델들의 부합도가 제시되어 있다.

5개의 모델 중 이중과정 모델과 대립 모델은

절대 부합치(GFI, AGFI, RMSEA)와 비교 부합치(PFI, CFI)로 살펴볼 경우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립모델이 가장 부합도가 낮았다. 즉, 종교성과 행복감은 상반되는 과정이 아니었다. 불행하면 종교에 몰입한다는 가설은 지지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통계적으로 간명성 부합치(PFI)를 기준으로 할 때는 그 차이가 .06에서 .09사이이면 간명한 모델(미지수가 작고 자유도가 큰)을 선택하게 된다(Williams & Podsakoff, 1989). 본 연구에서 두 모델의 차이(.723-.625=.098)가 그 범위를 벗어나고 이 때문에 작은(간명)모델인 대립 모델을 선택할 수 없다. 이중과정 모델과 상호작용 모델은 등지관계(nested relationship)이기 때문에 간명성 부합치가 아니라 카이제곱 차이 검증(Sequential Chi-square Difference Test: SCDT)을 통해 모델의 우수성을 판정할 수 있다. 카이 제곱 차이 검증은 자유도의 상실(작은 모델에서 큰 모델로)에도 불구하고 예측모델과 실제 모델의 차이가 유의미하게 감소했는가를 검증하는 것이다. 자유도의 차이(27-26=1)에 따른 χ^2 값의 차이(207.296-98.023=109.273)가 유

표 2. 행복감과 종교성 개념모델의 부합도와 비교결과

개념 모델	DF	χ^2	GFI	AGFI	RMSEA	PFI	CFI
이중과정모델	27	207.296	.786	.749	.182	.723	.699
대립모델	30	264.132	.675	.643	.197	.625	.622
일방향(행복감->종교성)모델	25	105.236	.909	.901	.082	.647	.904
일방향(종교성->행복감)모델	25	108.073	.902	.896	.089	.647	.899
상호작용모델	26	98.023	.912	.904	.080	.698	.908

1) 자유도란 관찰변인에 근거한 자료의 수 즉, 9(9+1)/2에서 미지수의 개수를 뺀 수이므로 이에 근거해 추정할 미지수가 산출된다.

의미하였기 때문에($p < .05$, 양방 수준) 큰 모델인 상호작용모델이 상대적으로 더 우수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일방향 모델들은 자유도가 같기 때문에($df=25$) 자유도의 차이로 모델을 판정할 수 없다. 그러나 절대부합치 상으로 볼 때 행복감 →종교성의 방향을 가지는 모델이 상대적으로 더 우수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특히, 이 모델은 근사 평균 사승오차(RMSEA)가 적절성의 기준인 .08에 더 근접하고 있어 이를 확증할 수 있었다. 따라서 이상과 같이 본 연구의 가설적 모형에 따른 검증의 분석결과를 종합하면, 상호작용모델 > 일방향(행복감 →종교성)모델 > 일방향(종교성 →행복감)모델 > 이중과정모델 > 대립모델의 순으로 적합도의 우열이 가려진 것으로 판정될 수 있다.

논 의

인간의 행복을 심리학적 방법으로 다루고자 한 것은 근래부터의 일이었다고, 최근에는 연구자들이 행복에 대한 구체적인 검증 사례들을 다른 심리학적 주제와 같은 방식으로 고찰한 결과들을 제안해 왔다. 심리학자들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불행하고 우울한 증세를 경감시키는 하나의 수단으로 행복 추구의 개념을 심리적 과정에 구체화시켰다. 본 연구에서는 인간의 행복감 종교성의 상호성이 파악하고자 하는 연구주제를 설정하였고,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두 가지 요소에 대한 척도들(심리적 안녕감과 종교적 태도)을 상용하여 개념적 모형을 비교 검증하였다. 설정된 개념적 모형은 5가지였으며, 각 모형들은 상호 영향에 대한 방향성까지 검증하였다. 가설적 모형들의 검증 결과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종합분석 결과에 의

한 영향력 판정 순서대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행복감과 종교성 두 요인이 서로 영향을 주고 받는 상호작용 모델(interactive model)이 가장 부합도가 높게 나타났다. 기존 연구들의 결과에 의하면, 종교성과 안녕감 간에는 정적 상관관계가 있지만 그렇게 높지는 않은 것은 사실이다. 이에 대해서는 안녕감과 종교 간의 상관성이 다차원적이기 때문에 신앙인에게는 그 관계에 대한 통합 개념이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다. 그리고 Chamberlain과 Zika(1989)의 주장대로, 이 상호작용 모델은 두 요소를 측정하는 방식에 따라 좌우된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여기서 사용된 척도들이 신앙인들로서 교회에 출석하여 활동하는 본 연구의 대상자들에 의해서 상호작용 효과가 강하게 드러난 경우라고 할 수 있다. 종교가 제공하는 것은 인생의 의미와 목적 그리고 사회적 지원(교회의 신자들을 통해서)이고, 그것을 통해서 안녕감이 상승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본다(Brown, 1994). 영국의 학생들에게 종교성에 대한 여러 가지 측정을 해본 Maltby와 Day(1999)는 개인적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은 우울과 분노의 정도가 낮았고, 높은 자아 존중감을 예언할 수 있다고 하였다. 과거에 Battista와 Almond(1973)는 행복을 연구하기 위해 안녕감 척도 즉, 'Life Regard Inventory'를 개발하였는데 그 가운데 존재론적 안녕감 척도는 종교적인 측면을 측정하였고, 양자 간의 상응적 효과를 증명하기도 하였다.

두 번째로는 행복감 →종교성의 일방향 모델(happiness-to-religious orientation one way model)이 그 다음으로 부합도가 강하게 나타났다. 일부 연구자들은 행복한 사람은 종교를 가질 수

도 있다는 것이지 반드시 필요한 것이 아니라고 보았다. 세속적인 행복은 보다 천박한 근원에서 나온다고 보는 것이다. 그러나 이 모델은 예컨대, Maslow(1968)의 욕구위계이론과 같이 자아실현 개념의 가장 상위에 해당하는 초월적 태도에 초월적 종교성이 강화되는 것과, 성숙된 사람은 참 종교를 추구하게 된다는 Allport(1961)의 성숙이론에 따라 정신적 안녕감이 종교적 내재성과 정적이 상관이 깊은 것에서 설정되었다.

세 번째로 부합도가 높은 것은 종교성→행복감의 일방향 모델(religious orientation-to-happiness one way model)은 전통적인 종교적 관념으로서, 종교를 다른 목적을 만족시키기 위해 활용되는 것이 아니라 종교적 참여가 자신의 존재 이유를 충족시키는 모형이다. 즉, 종교는 사회적 지원으로 행복하게 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합일되는 하나님과의 평화 상태를 느끼게 되는 경우에도 행복을 갖게 해 준다는 개념이다(Kirkpatrick, 1992). 전자는 교회의 서비스 과정에서 얻어지는 것이고, 후자는 교회의 유익성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깊게 가지는 것이다. 종교에 몰입한 신앙인은 인생의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있고, 행복에 대한 독특한 가치를 느끼면서 죽음 같은 불행에 대해서도 별로 걱정하지 않을 것이라는 모형이다.

네 번째로 부합도가 높은 모형은 이중과정 모델(dual process)로서 두 요인 간에 서로 관계가 없다($r=0$)고 가정하는 방식이다. 종교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지 않고 보상보다 벌을 전달하게 된다면, 행복감과 종교성의 상관성은 예측할 수 없으며 종교적 의지는 쓸모없게 된다는 가정이다. 종교는 인간에게 몇 가지 자유를 부여하지만 그

외에는 '인지적 속박'과 같은 상태에 처하게 되어, 자유로운 생각이나 신념 체계 자체에 대한 의심을 가지게 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그러한 독단적인 태도가 나타나는 경우에 신앙인은 비개방적 마음을 가지게 되며, 확실한 증거도 없이 결정을 내린 사람들이 비이성적으로 비약을 하기도 한다는 것이다(Batson, Schoenrade, & Ventis, 1993).

다섯 번째로 부합도가 가장 약하게 나타난 것은 개인이 불행 때문에 종교를 찾게 되고 종교에 몰입한다는 대립 모델(confronting)이다. 이 경우는 종교적으로 참여하면 개인적 안락과 사회적 지위를 만족시키는 것으로 인식하여, 종교적 관여가 구체적인 실용성과 연합되어 경우라고 볼 수 있다(Kirkpatrick, 1989). 최근 연구들에서 사회집단이나 종교집단에서 종교가 자기 위안의 행동들과 연관된다는 개념화 증거가 나타나고 있었다. 가난해지거나 불행하다고 느껴질 때 종교를 더 찾거나 더 멀리 하는 두 가지 양상이 있다고 보지만, 이 대립 모델의 경우는 교회가 자신의 문제 해결의 좋은 방책이 된다고 보거나 교회내의 활동을 통하여 사회적으로 부족한 점을 충족시킬 수 있다는 의지가 뚜렷하다고 보는 것이다. 그리고 종교를 건강과 관련지었을 경우에는, 의학으로 실패한 경우에 사람들은 대안으로 자주 종교적 형태의 치료를 선택하기도 한다. 그러한 치료가 생활에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는 것을 포함하여 증가하는 주관적 건강에 성공적임을 보아왔다. 종교가 보다 나은 신체적 건강을 이끄는 것이 보였다면, 행복하게 되는 효과 보다 더 실질적인 이익을 가져다주는 인상적인 증거가 될 것이다(Argyle, 2001).

이상과 같은 연구결과에 대한 논의에서, 일반적으로 종교심리학에서 기대하는 결과를 다소 벗어나서 특징적으로 보이는 것은 종교성→행복감의 일방향 모델이 행복감→종교성의 일방향 모델보다 부합도가 약하게 나타난다는 점이다. 이러한 경향은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가 이미 종교를 가지고 있는 신앙인이기 때문에, 측정 과정을 거친 각 척도들의 문항에 대해서 인지부조화를 경험하지 않기 위하여 인지조화를 이루는 합리화 같은 기제가 작용했다고 볼 수도 있다. 그리고 본 연구의 종교적 태도 척도(종교정향)와 심리적 안녕감(행복) 척도 간의 상호적 부합도를 적절하게 변별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추정할 수도 있지만 본 연구의 자료가 지니는 실제성에 의한 결과일 수도 있다고 본다.

끝으로 종교가 인간에게 긍정적 기대의 결과를 도출한다는 측면을 중요시한다는 큰 흐름에서 후속적인 연구가 이어져야 할 것이고, 좀 더 폭넓은 연구의 가설적 구성을 하기 위해서는 기독교가 아닌 타 종교인들에 대한 반응도 측정하여 비교분석하는 접근이 필요하다. 더 나아가 조사대상자가 현재의 종교를 가지고 살아온 신앙생활 연한에 따라 다소 다른 양상의 결과를 나타낼 수도 있는 점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더욱이 조사대상자가 최근 6개월 정도의 기간에 겪은 스트레스가 종속변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통제의 문제도 간과할 수 없다. 그리고 종교를 가지지 않은 사람들이 행복감과 종교성에 대해서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조사연구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행복감 및 종교성의 연령별 발달적 변화는 청년, 성인, 노인들에 대한 시계열 구조방정식 분석으로 그 추이를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남녀 성차에 대해서는 중다집단비교(multi-group analysis) 방식으로 각 경로별 차이를 검증할 수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 김동기 (2005). 종교인들의 심리적 안녕감(행복)에 대한 종교적 내재성 및 종교정향의 상호작용 연구. *한국종교학회 종교연구*, 39, 107-133.
- 김동기 (2008). *종교심리학*. 학지사.
- 김동기, 김은미 공역 (2005). *행복심리학*. 학지사.
- 이순복 (1990). *공변량 자료분석*. 성원사.
- Allport, G. W., & Ross, J. M. (1967). Personal religious orientation and prejudic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 432-443.
- Andrews, F. M. (1991). Stability and change in levels and structure of subjective well-being. *Social Indicators Research*, 25, 1-30.
- Andrews, F. M., & McKennell, A. C. (1980). Measures of self-reported well-being. *Social Indicators Research*, 25, 1-30.
- Andrews, F. M., & Withey, S. B. (1976). *Social indicators of well-being*. New York: Plenum.
- Argyle, M. (2001). *The psychology of happiness*. London: Routledge.
- Argyle, M., & Hills, P. (2000). Religious experiences and their relationships with happiness and personality. *International Journal for the Psychology of Religion*, 10, 157-172.
- Batson, C. D., & Ventis, W. L. (1982). *The religious experience: A social-psychological perspective*.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Batson, C. D., Schoenrade, P., & Ventis, W. L. (1993). *Religion and the Individual*.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Battista, J., & Almond, R. (1973). The development of meaning in life. *Psychiatry*, *36*, 409-427.
- Bentler, P. M., & Chou, C. P. (1987). Practical Issues in Structural Modeling. *Sociological Methods and Research*, *16*, 78-117.
- Birren, J. E., & Renner, V. J. (1980). Concepts and issues of mental health and aging. In J. E. Birren & R. B. Sloane (Eds.), *Handbook of mental health and aging* (pp. 3-33). Englewood Cliffs, NJ: Prentice Hall.
- Bollen, K. A. (1989). *Structural Equations with Latent Variables*. New York: Wiley.
- Bradburn, N. M. (1969). *The structure of psychological well-being*. Chicago: Aldine.
- Brown, L. B. (1994). *Religion, Personality, and Mental Health*. New York: Springer-Verlag.
- Bryant, F. B., & Veroff, J. (1982). The structure of psychological well-being: A sociohistorical analysi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3*, 653-673.
- Burris, C. T. (1994). Curvilinearity and religious types: a second look at Intrinsic, Extrinsic, Quest relations. *International Journal for the Psychology of Religion*, *4*, 245-260.
- Burris, C. T., & Jackson, L. M. (2000). Social identity and the true believer: Responses to threatened self stereotypes among the intrinsically religious. *British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39*, 257-278.
- Chamberlain, K. & Zika, S. (1989). Religiosity, life memory, and well-being: Some relationships in a sample of women. *Journal for the Scientific Study of Religion*, *28*, 411-420.
- Delbridge, J., Headey, B., & Wearing, A. J. (1994). Happiness and Religious Belief. In L. B. Brown, *Religion, Personality, and Mental Health* (pp. 50-68). New York: Springer-Verlag.
- Diener, E. (1984). Subjective well-being. *Psychological Bulletin*, *95*, 542-575.
- Diener, E., & Emmons, R. A. (1984). The independence of positive and negative affec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7*, 1105-1117.
- Diener, E., Larsen, R. J., Levine, S., & Emmons, R. A. (1985). Intensity and frequency: Dimensions underlying positive and negative affec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8*, 1253-1265.
- Donahue, M. J. (1985). Intrinsic and extrinsic religiousness: Review and meta-analysi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8*(2), 400-419.
- Ellison, C. G. (1991). Religious involvement and subjective well-being.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32*, 80-99.
- Francis, L. F., & Katz, Y. J. (2003). Religiosity and Happiness: A Study among Israeli female undergraduates. In R. L. Piedmont, & D. O. Moberg, *Research in the Social Scientific Study of Religion Vol. 13* (pp. 75-86). Boston: Brill.
- Genia, V. (1996). I. E. Quest, and fundamentalism as predictors of psychological and spiritual well-being. *Journal for the Scientific Study of Religion*, *35*, 56-64.
- Hadaway, C. K., & Roof, W. C. (1978). Religious commitment and quality of life in American society. *Review of Religious Research*, *19*,

- 295-307.
- Headey, B. W., & Wearing, A. (1992). *Understanding Happiness*. Melbourne, Australia: Longman Cheshire.
- Headey, B. W., Holmstrom, E. L., & Wearing, A. J. (1984). Well-being and ill-being: different dimensions. *Social Indicators Research, 14*, 115-139.
- Headey, B. W., Holmstrom, E. L., & Wearing, A. J. (1985). Models of well-being and ill-being. *Social Indicators Research, 17*, 211-234.
- Hoyle, R. H., & Panter. A. T. (1995). Writing about Structural Equation Models." pp. 158-176 in R. H. Hoyle (ed.),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Thousand Oaks, CA: Sage.
- Inglehart, R. (1990). *Culture Shift in Advanced Industrial Society*.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Joreskog, K. G., & Sörbom D. (1997). *LISREL 8: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with the SIMPLIS Command Language*. Chicago: SSI Inc.
- Kirkpatrick, L. A., & Hood, Jr., R. W. (1990). Intrinsic-extrinsic orientations: Boon or bane? *Journal for the Scientific Study of Religion, 20*, 442-462.
- Kirkpatrick, L. A. (1989). A psychometric analysis of the Allport-Ross and Feagin measures of intrinsic-extrinsic religious orientation. In M. Lynn & D. Moberg (Eds.), *Research in the Social Scientific Study of Religion*, Vol. 1, (pp.1-31). Greenwich, CT: JAI Press.
- Kirkpatrick, L. A. (1992). An attachment-theory approach to psychology of relation. *International Journal for the Psychology of Religion, 2*, 3-28.
- Maltby, J., Lewis, C. A., & Day, L. (1999). "Religious orientation and psychological well-being: the role of the frequency of personal prayer", *British Journal of Health Psychology, 4*, pp.363-378.
- Peterson, L. R., & Roy, A. (1985). Religiosity, anxiety, and meaning and purpose: Religion's consequences for "psychological well-being". *Review of Religious Research, 27*, 49-62.
- Piedmont, R. L., & Moberg, D. O. (2003). *Research in the Social Scientific Study of Religion, Vol. 13*. Boston: Brill.
- Pollner, M. (1989). Divine relations, social relations, and well-being.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30*, 92-104.
- Ryff, C. D. (1989). Happiness is everything, or is it? Explorations on the meaning of psychological well-be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7*, 6, 1069-1081.
- Ryff, C. D., & Keyes, C. L. M. (1995). The structure of psychological well-being revisited.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9*, 4, 719-727.
- Smith, D. A., Mar, C. M., & Turoff, B. K. (1998). The Structure of Schizophrenic Symptoms: a Meta-analytic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Schizophrenia Research 31*, 57-70.
- St. George, A., & McNamara, P. H. (1984). Religion, race, and psychological well-being. *Journal for the Scientific Study of Religion, 23*, 351-363.
- Steinitz, L. Y. (1980). Religiosity, well-being, and weltanschauung among the elderly. *Journal for the Scientific Study of Religion, 19*, 60-67.
- Veenhoven, R. (1994). *Correlates of Happiness* (3

Vols.). Rotterdam, The Netherlands: RISBO,
Center for Socio-Cultural Transformation.

- Williams, L. J., & Podsakoff, P. M. (1989).
Longitudinal Field Methods for Studying
Reciprocal Relationships in Organizational
Behavior Research: Toward Improved Casual
Analysis. *Research in Organizational
Behavior 11*, 247-292.
- Witter, R. A., Stock, W. A., Okum, W. A., & Haring,
M. J. (1985). Education and subjective
well-being: a meta-analysis. *Educational
Evaluation and Policy Analysis 6*, 165-173.

논문접수일: 2007년 4월 19일

수정논문접수일: 2007년 6월 4일

게재결정일: 2007년 6월 9일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The Korean Journal of Health Psychology
2007. Vol. 12, No. 2, 347 - 365

A compared testifying for the conceptual relation model about happiness and religious attitudes

Dong Gi Kim
Kangnam University

This study is designed to recognize the orientation of the effectiveness in the conceptual relations of models about happiness and religious attitudes, and to consider comparative testifying about relation models. The hypothetic model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dual process model that there is no relation between two factors, confronting model that the two factors are opposite, happiness-to-religious orientation one way model that happiness reinforces transcendental religion, religious orientation-to-happiness one way model that the absorbing religion reinforces the value of happiness, and interactive model that religion and happiness are interactive. The participant are 633 persons(197 males, 436 females), who are 245 protestants and 388 catholics. The approach method is to testify the validity of models which focus on the relations between two factors and to conduct correlation comparison through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and local minimums. The analysis result of testifying according to the five models is as follows: the fits is the highest in interactive model and the rest are in the order of happiness-to-religious orientation one way model, religious orientation-to-happiness one way model, dual process model, and confronting model.

Keywords : *happiness, religious attitudes, psychological well-being, psychological well-being scales, religious orientations, religious orientations scales.*